

번호 13-5

제 목	국문	당뇨병 환자들의 대체의학 경험실태와 관련요인			
	영문	Status and Associating Factor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mong Korean Diabetic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전진호 · 김윤숙 <sup>1)</sup> · 박정현 <sup>2)</sup>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부산백병원 약제과 <sup>1)</sup> · 내분비내과 <sup>2)</sup>			
	영문	<i>Jin-Ho Chun · Yoon-Sook Kim · Jung-Hyun Park</i>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University</i> <i>Department of Pharmacy<sup>1)</sup> &amp; Endocrinology<sup>2)</sup>, Pusan Paik Hospital</i>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		전 공 의 ( )		포스터 ( )
환 경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대체의학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밝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들의 대체의학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당뇨병 치료에 있어 대체의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 방법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 중인 192명(남자 93명, 여자 99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1999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였다. 연구방법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당뇨병과 관련된 특성, 대체의학에 대한 경험과 관련요인 등이었다.

3. 연구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7.0±9.6 세, 평균 당뇨병 이환 기간은 8.2±6.0 년이었으며 83.9%가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45.3%에서 식이·운동요법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체의학을 경험한 비율은 70.8%로 매우 높았으며, 총 종류는 132 중, 1인당 평균 경험한 종류는 7.6 종이였다. 경험한 대체의학의 종류는 누에(80.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삼(34.6%), 검은콩(33.1%), 한방보약(18.4%), 솔잎(17.6%) 등의 순이었다. 대체의학을 경험하게 된 동기는 주위의 권유(64.7%)가 많았으며, 주로 권유한 사람은 가족·친지, 친구(50.7%)와 다른 환자(25.0%)들이었다. 대체의학을 접하게 된 경로는 대중매체(25.0%), 건강관련책자(20.6%)가 많았다. 경험군의 86.8%에서 대체의학과 기존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27.9%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대체의학의 효과를 인정하였다. 대체의학 경험군이 미경험군에 비해 당뇨병 이환 기간이 긴 경우, 공복혈당치가 높은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p<.05), 대체의학 경험여부는 당뇨병 교육 참여, 당뇨병 관련 지식, 자기 관리 정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남자(OR=2.36), 당뇨병 이환 기간(OR=1.08), 대중매체·책자로부터의 정보제공(OR=3.88)과 교육 수준(OR=0.43)이 대체의학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찰되었다(p<0.05).

#### 4. 고찰

많은 당뇨병 환자가 입증할 만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치료법과 더불어 다양한 대체의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뇨병 교육이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체의학과 관련한 정보는 주로 대중매체와 각종 건강관련책자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 치료에 있어 대체의학의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체의학에 대한 올바른 환자 교육과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를 적절히 검정하고 여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